

프로이트 읽기: 『성욕에 관한 세 편의 에세이』 6강

성격과 항문 에로티시즘 (1908)

분석을 통해 도우려고 하는 사람 중에는 특정한 유형의 성격을 소유한 사람들이 있다. 그런 사람을 만나면 어린 시절 그의 신체 기능 중 하나가 어떤 행태를 보였는지 또한 그와 관련된 신체 기관에도 관심이 끌린다. 경험상 이런 유형의 성격과 그 신체 기관의 행태 사이에는 어떤 연관 관계가 존재한다.

내가 지금 묘사하려는 사람은 성격상 세 가지 특징이 존재했다.

① 깔끔함 ② 인색함 ③ 완고함

위의 세 단어는 서로 관련된 성격상 특질을 보여준다.

깔끔함은 신체의 청결, 소소한 의무를 행하는 데 있어서 양심과 신뢰성 등을 포괄하는 의미를 지닌다. 반동형성

인색함은 탐욕의 과장된 형태이고, 완고함은 분노와 복수심이 결합된 저항의 의미이다. 이는 충동의 승화를 나타낸다.

이런 성격을 내보이는 사람들의 어린 시절을 살펴보면 우리는 이들이 유아기의 배변 실금을 극복하는데 비교적 오랜 시간이 걸렸음을 쉽게 알아낼 수 있다. 그리고 어린 시절 후반부에도 대소변을 정상적으로 보지 못해 고생한 것을 알 수 있다. 이들은 변기에 앉아도 완전한 배설을 거부하는 부류에 속한 듯 보인다. 완전한 배설을 거부하는 것은 여러 차례의 배설을 통해 부수적 쾌락을 이끌어 낼 수 있기 때문이다.

그들은 성인이 되어서도 변을 억제하는 일을 즐겼다. 여기서 우리가 추론할 수 있는 것은 그들의 경우 항문 성감대가 매우 강하게 발달되어 있는 특이한 체질을 갖고 태어난 사람들이라는 사실이다. 그러나 어린 시절이 지나가면 그런 특이성이 전혀 발견 되지 않기 때문에 성장 과정을 거치는 동안 항문이 성감대로서의 중요성을 상실한다고 결론 내려야 한다. 그렇다면 앞서 언급한 세 가지 특성은 항문 성애의 상실과 관련이 있을지도 모른다.

성적 흥분을 일으키는 주요 요소는 특정 신체 부위에 대한 말초적 자극이다. 따라서 그 신체 부위를 성감대라고 부른다. 그런데 이 성감대들이 인생의 각 시기마다 동일하게 존속하는 것은 아니다. 이 성감대들 중에서 오직 한 부분만이 성생활에 이용되며, 나머지 부분들은 성 목적에서 벗어나 다른 목적으로 나아간다. 이 과정을 승화라고 부른다.

잠복기라고 불리는 기간 동안 수치심, 혐오감, 도덕성 같은 반동 형성이나 반대 세력이 정신 속에 나타난다. 반대 세력은 성감대에서 나오는 흥분을 억누르면서 형성되고, 성 충동을 가로막는 댐처럼 솟아난다.

항문 성애는 바로 성장 과정, 교육에 의해서 성 목적에 기여할 수 없게 된 우리 성 충동의 구성 요소다. 따라서 예전에 항문 성애에 탐닉했던 사람에게 두드러지게 나타나는 세 가지 성격의 특질은 항문 성애의 승화가 처음 그리고 가장 일정하게 일어난 결과인 것이다. 승화는 충동을 억제[제한]하여 다른 목적에 사용하며, 그렇게 해서 만족을 얻는 방식이다.

이런 연관 관계가 본질적으로 필연적인 것인지[번역서에는 필수적인 것인지]는 분명하게 말할 수 없다. 깨끗함, 질서정연함, 신뢰성 등은 불결하고 역겨운 것에 대한 관심에 대항하여 형성된 반응의 산물이다. 배설과 완고함을 관련시키는 것은 쉽지 않다. 기억해야 할 것은 우리가 아이를 키우면서 아이들이 고집을 피울 때, 그것을 꺾으려면 엉덩이에 고통스런 자극을 가하면 된다는 점이다. 오늘날 교만에서 비롯된 경멸감을 표현할 때 엉덩이를 내보이는 버릇이 남아있는 것은 그 까닭이다.

엉덩이를 노출하는 행위는 현실적으로 억압에 눌려왔던 어떤 부드러운 행위를 의미하며, 어떤 행동의 요구를 제스처로 순화시켜 표현한 것이다.

돈에 대한 관심에서 비롯된 콤플렉스와 배설 콤플렉스 사이의 관계가 아마 가장 포괄적일 것이다. 태곳적 사고방식이 아직 우세한 곳 - 고대 문명, 신화, 우화와 미신, 무의식적 사고, 꿈과 신경증 등 - 에서는 돈이 오물과 가장 밀접한 관계가 있는 것으로 나타난다. 악마가 건네 준 황금이 똥으로 변했다는 이야기는 잘 알려져 있다. (황금과 똥의 등치 관계에는 색깔의 유사성도 한 몫 했을 것이다) 신경증 환자의 사고에서는 이러한 등식이 가능한 경우도 있다. 어린 시절 배설에 대한 관심이 커서는 돈에 대한 관심으로 떠오른다.

성인이 되어서도 항문 성감대를 유지하는 사람들, 가령 동성연애자들은 지금까지의 추론이 잘 들어맞을 것이다. 어쨌든 우리는 성격이 어떻게 원초적 충동에서 형성되어 왔는지 그 공식을 설명한 셈이다.

항문 에로티시즘의 예로 본 충동의 변형 (1917)

이 글의 요지는 1915년 판 『성욕에 관한 세 편의 에세이』에 이미 나타났으며, 여기서 언급된 많은 결론들은 『늑대 인간』의 사례에서 따온 것들이다.

* 여기서 나르시시즘의 도입 후 달라지는 것들을 잠시 살펴야 한다. 나르시시즘은 자가-성애와는 다르다. (본문 오역이 심각한 이유) 자가-성애 단계에서는 아직 대상 개념이 정립되어 있지 않다. 나르시시즘이란 리비도가 자아를 대상으로 투여되는 것을 말한다. 원래 리비도는 프로이트 초기 이론에서는 자아와 대립하는 것으로, 주로 억압이나 방어 기제로 활약했다. 왜냐하면 성인이 되어서도 유아의 도착적 성 충동이 무제한적으로 외부대상으로 투여되면, 사회질서가 유지될 수 없기 때문이다. 따라서 잠복기 동안 교화의 과정을 거치면서 성 충동에 대한 혐오감이 생겨나고, 유아는 도덕성을 내면화하게 된다.

프로이트는 정신병에서 분석이 불가능한 이유에 대해 고민하던 중 그 이유가 정신병자는 리비

도가 외부 대상으로 투여되지 않고 대신에 자아로 전적으로 철회된 것이며, 이 경우 외부 대상에 반응을 보이지 않아 분석도 불가능하다는 추론을 시도한다. 중요한 것은 전이 자체가 리비도의 분배를 전제한다는 점이다. 이전 까지 전이는 잘못된 결합, 그러니까 기억과 정서가 일치하지 않는 것을 의미했다. “종로에서 뽕 맛고 한강 가서 눈 흘기는” 격이다. 유아 성욕을 논하면서부터 전이에 대한 정의가 사뭇 달라진다. 정신분석은 분석자의 유아 성욕이 분석가와 의 관계에서 재현되는 것인데, 이는 분석가를 유아기의 성 대상으로 대체하기 때문이다. 이때부터 자아도 리비도의 한 대상으로 규정되며, 전과는 다른 이론적 접근을 시도하게 된다.

리비도의 분배는 충동의 변형과 관계가 있다. 가령 사디즘에서 마조히즘으로. 마조히즘은 리비도가 방향을 바꾸어 자신을 향하는 것이다. 즉 리비도의 대상으로서 자신을 놓는 것. (재귀) 타자를 가학하면서 만족을 느끼던 사람이 대상이 상실되거나 부재하면 대상을 자신으로 바꾸어 만족을 얻는다.

몇 년 전 분석을 통해 관찰한 사실들을 기초로 나는 다음과 같은 글을 썼다. 깔끔함, 인색함 그리고 완고함, 이 세 가지 성격상 특징은 항문 성애 요소가 강화되었음을 나타내는 것이며, 자아를 통해 드러난 이러한 반응 형태는 항문 성애의 동화[번역본에는 동일화]가 이루어지는 동안 성립되었다는 것이다.

그 때 이후로 다음에 대해서는 의견이 일치되고 있다. 깔끔함, 인색함 그리고 완고함의 특징은 항문 성애적 기반에서 시작되었고, 항문 성애적 기반으로 강력하게 나타날 수 있다는 것이다.

몇 년간의 무수한 관찰과 분석의 결과 다음의 결론에 도달했다. 남자의 리비도 발달 과정에서 성기기가 우월하게 나타나는 시기 이전에 사디즘과 항문 성애가 주요 역할을 하는 전-성기기의 조직화가 선행되어야만 한다는 것이다.

확고한 성기기의 조직화가 이루어지게 되면 항문 성애적 충동들은 어찌 될 것이며 언제쯤 성생활에 미치는 그 영향력을 잃는가? 억압된 상태에서도 특질을 유지하는가? 성격적 특징으로 승화되고 동화되는가? 아니면 성기기 조직에서 일정한 위치를 얻는가? 어쨌든 항문 성애의 기본 요소들이 성기기의 조직화가 이루어졌다고 해서 사라질 수는 없다. (억압은 결코 사라지는 것이 아니다)

논의의 출발점으로 배설물(돈, 재능), 아기, 페니스는 무의식의 산물로 거의 별 차이가 없고, 간단히 서로 대체될 수 있는 듯 보인다는 점을 사실로 받아들여야 한다. 쉽게 말하면 무의식에서는 이러한 요소들이 마치 서로 동등한 것처럼 서로 자유롭게 대체될 수 있는 것처럼 취급된다.

구순기: 젖가슴 = 손가락 = 발가락

항문기: 똥 = 아기 = 페니스

남근기: 페니스[남근] = 남자 = 아기

이는 **아기와 페니스** 관계에서 가장 쉽게 볼 수 있다. 꿈의 상징적 언어에서 두 가지 모두 똑같은 상징으로 대체될 수 있다는 것은 매우 중요하다. 상징적 언어가 종종 성차sexual difference를 무시하는 것은 잘 알려져 있다. 아기와 페니스는 둘 다 성차를 무시한 **작은 것**으로 묘사된다. 이는 원래 남성의 생식기관을 의미했지만, 나중에 여성 생식기에도 적용할 수 있게 되었다.

여성의 신경증을 고찰해보면 남자와 같은 페니스를 갖고자 하는 억압된 소망을 쉽게 알 수 있다. 이는 ‘페니스 선망’이라 부르며 거세 콤플렉스에 포함된다. (거세 콤플렉스 = 남성의 거세 불안 + 여성의 페니스 선망) 그러한 여성들의 삶에 나타는 불운은 바로 남성적 기질을 소유한 것의 결과이다. 여성들의 불운은 리비도 역행을 통해 유아기 소망을 재활성화 시키는데, 이는 신경증 증상의 중요한 매개가 된다. 다른 여성들에게서는 이러한 페니스 선망의 증거를 찾아볼 수 없다. 이 소망은 아기에 대한 소망으로 바뀌고, 현실에서 이것이 좌절되면 신경증 증상을 일으킬 수 있다. 페니스에 대한 소망이나 아기에 대한 소망은 근본적으로 같은 것이다.

우리는 페니스에 대한 유아기 소망의 최종 산물이 이후의 삶에서 신경증의 결정 요인들이 부재하는 여성들 안에 있다고 말할 수 있다. (완전한 오역, 쉽게 말해서 신경증에 걸리지 않는 여성들도 페니스에 대한 소망의 산물을 가지고 있다는 의미) We can say what the ultimate outcome of the infantile wish for a penis is in women in whom the determinants of a neurosis in later life are absent. 그것[페니스에 대한 소망]은 남자에 대한 소망으로 바뀌고, 페니스에 딸린 부속물로서 남자를 받아들인다. 따라서 이 변형은 여성적 성 기능에 적대적인 충동을 그것에 호의적인 것으로 바꾸어준다. 그러한 여성들은 이런 식으로 남성적 유형의 대상애에 기초한 성생활을 할 수 있게 되는데, 이는 나르시시즘에서 도출된, 여성에게 고유한 대상애와 병존할 수 있다. 다른 경우들에서는 자기애에서 대상애로의 전환을 가능케 하는 것이 오직 아기라는 사실을 알고 있다. 결국 이 점에서 아기도 역시 페니스로 나타날 수 있다. (번역문 대폭 수정)

종종 첫 경험 후 꾸는 꿈에 대해서 들을 기회가 있는데, 그 꿈들은 그 여성이 페니스를 소유하고자 하는 소망을 드러냈다. 이는 그녀의 소망 대상으로서 남성에서 페니스로의 일시적 퇴행을 나타냈다. 이는 합리적 방식인데, 왜냐하면 남성과의 협력 없이는 아기를 가질 수 없음을 조만간 이해하기 때문이다. 이 과정이 중요한 것은 젊은 여성의 자기애적narcissistic[여기도 결정적 오역] 남성성의 일부가 여성성으로 바뀌고, 따라서 더 이상 여성적 성기능에 해롭지 않게 작용하기 때문이다.

전-성기기의 성적 요소는 성기가 우월한 시기에 사용된다. 아기는 내장을 통해 밖으로 몸 밖으로 나온다는 점에서 럼프로 여겨진다. 똥은 아기의 첫 선물이며, 소중한 신체의 일부다. 배변 활동은 아이가 자기애와 대상애 중 하나를 선택해야 하는 첫 번째 경우다. 순순히 배변함으로써 희생하거나 자가-성애적auto-erotic 만족과 나중에 자기 고집을 주장하는 수단으로 변을 보유한다. 아이가 후자를 선택하면 반항적 태도, 완고함을 보이게 된다.

아이가 변에 관심을 기울이는 의미는 금/돈 보다는 선물이다. 똥이 자신의 최초의 선물이기 때문에, 그 아이는 쉽게 그 실체[똥]에서 삶에서 가장 소중한 선물로 만나는 새로운 실체[돈]

나 아기]로 관심을 옮긴다. 이와 같은 선물의 도출이 의심스러운 사람들은 환자들이 건네는 선물을 연구하고, 그 선물이 환자들에게 야기할 수 있는 전이의 폭풍을 지켜보아야 한다.

똥에 대한 관심은 부분적으로 돈에 대한 관심이나 아기에 대한 소망으로 이어지는데 후자에서 항문 성애와 성기기 충동, 즉 페니스 선망이 만난다. 그렇지만 아기에 대한 관심과의 관련성 외에 페니스는 또 다른 항문 성애적 중요성을 갖는다. 대변 덩어리/막대기는 페니스를 상징하며 직장 점막은 질의 점막을 상징하기 때문이다. 요컨대 전-성기기에 유아는 이미 환상과 도 착적 놀이 속에서 생식기와 유사한 기관을 만들어냈다.

대변에 대한 관심이 정상적으로 줄어들게 되면 기관의 유사관계가 페니스로 관심을 전이시키는 효과를 갖는다. 똥 = 페니스 = 아기

항문 성애는 반항의 생산에서 자기애적 적용을 발견하는데, 이는 다른 사람들의 요구에 반대하는 자아에 중요한 반동을 구성한다.

남아 : 똥 → 선물 → 돈

여아 : 페니스 → 아기 → 남자 혹은 페니스 → 남자 → 아기

위의 상호 관계의 또 다른 핵심은 남성들에게서 분명히 관찰된다. 성 탐구를 통해 여자에게 페니스가 없다는 사실을 알게 되면, 페니스가 신체 내의 물질인 똥처럼 떼어낼 수 있는 신체의 일부라고 결론 내린다. 이것이 거세 콤플렉스로 이어진다.

어린 아이는 성 탐구를 통해 내장의 내용물에 대한 심리적 대체물을 찾는다. 이에 부응하여 아이는 아기가 태어나면 그 아기를 림프로 간주하며 그것에 자신의 항문 성애적 관심을 집중한다.

대변, 페니스, 아기 모두 강한 삼입이나 축출 작용을 통해 점막 통로를 자극한다. 살로메가 말했듯 질은 항문에서 떨어져 나온 것이다.

